◇ 지난호 길영목 학형의 학생회 관련글에 대한 반론

자치회비 대의원회 감시, 일반학우에 공개

복지장학금 일부간부 수혜, 학생회 활동에 쓰여

지난주 대학주보를 펼쳐들었다가 경기(驚氣)가 났다.

박홍 총장에게 정의구현사제단이 말한 '무지의 폭력'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가진 학생이라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를 놀라게 했던 대목은 '학생회 자치회비를 공개하라', '간부는 장학금 받고…'

정말로 독설적이고 전심을 모르는 일반학우가 봤더라면 '그래'하고 무릎을 칠만한 표현들이었다. 하지만 난 단연코 말하건데 이건 '무지의 폭력'이다.

하나씩 풀어보자. 자치회비 공개에 관한 부분이다. 자치회비는 우리 학우들이 우리 학생회를 유지, 이끌어가기 위해 강제성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다. 따라서 학생회 간부는 이러한 학우의 열정을 속에 담으며 이를 집행한다. 그런데 길형은 '이 돈으로 비싼 플랭카드 사고, 대자보 사고'라는 표현(물론 작은 따옴표를 사용함으로써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긴 했지만)을 썼다. 정말일까? 아니다. 예산집행 공개의 경우, 대의원회라는 엄연한 기구에서 그것을 감시하고 일반학우에 공개한다.

각 단대 과학생회장이 보여 직접 선출한 대의원회에서 각 분기별로 총학생회의 자치회비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다. 이는 같은 날짜 신문에 실린 기사 '자대 대의원장 선출'란에 분명 그의 공약이 '총학 감사의 혁신'이라고 밝힘으로써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공개된 전반기 감사내용에 모든 예산집행이 나왔으며 여기에 플랭카드값, 대자보값은 나오고 있지 않다.

장학금 문제를 꺼내보자. 학생회 간부들은 이번 방학중에도 학우들의 자주적 삶과 복지를 위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공안탄압의 손길에서 지켜내고 학교측의 합의서 불이행 움모를 분쇄해냈다. 그러한 간부들이 자신의 안락을 위해 장학금을 받고 '학점이 모자라'학교를 더 다니고 그럴까? 간부의 몫으로 떨어지는 장학금은 복지장학금의 명목으로 어느 학점이상의 간부에게 지급된다. 그 간부라는 개념도 폭넓지 못하고 액수도 많지 않다. 그런데 이런 장학금을 간부는 어디에 쓰는가? 이는 길형이 말한 바로 플랭카드값, 대자보값에 쓰인다. 학생회를 꾸려가기 위해 자신에게 떨어진 돈까지 학생회 활동에 쓰는 것이다.

요즘 가뜩이나 공안탄압과 학원안정화 대책 등으로 어려운 시기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1만의 단결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근거없고 김증없는 기사가 1만의 땀, 글인 대학주보에 실린다면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수 있을까? 물론 다양한 의견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의견에 거짓의 자료와 거짓 표현이 들어간다면 그 의견이 정당한 것인가?

길형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싶으며 대학주보측에도 의견수렴은 좋지만 그것의 사실여부는 따져 봐야 하지 않겠냐는 충언도 던져본다.

이러 활자화된 글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독자 모두의 것이기에.

최 은 호
(화공·2)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 ; jang3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 ; joo3

도서관 개관 전 단대 서적 이동

학생편의 고려 안한 편의 행정

무심코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당사자에 본의 아닌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측은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당할 지 고려한 후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공대 도서관 창고인람 실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아무런 통고 없이 폐쇄를 한 것을 보더라도 학교측의 공부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도서관 개관이 모두가 원한 일이라 해도 그 일을 하기위해 있었던 학교측의 일방적 행정은 결코 그냥 넘어 갈 수 없다.

공대도서관 서적들을 중앙도서관으로 옮겨 놓아 당장 공대생들은 책을 빌려 볼 곳이 없다.

씨야할 보고서 참고 자료를 찾기위해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학교측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나?

도서관 개관이후에 서적을 옮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저지르듯 아무 생각없이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학생회는 왜 가만히 있는걸까?

참시만 참으면 해결된다고 간단히 말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급하게 서적을 찾다 낭패를 보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일을 계기로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학생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면 나서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 윤 재
(전자·1)

한총련 의견 개진 운동 처방책 아니다

정치적 목표로 당당히 투쟁하는 자기모색 절실

현 정세가 아니더라도 학생회, 학생운동(한총련, 21세기연대등)에 대한 자체진단의 필요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학생운동이 변해야 하며, 특히 학생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한총련의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일반 학우들도 주장해 왔었다. 이번 주사파탄압은 학생운동혁신과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창출했으며, 한총련이 사회적 임시처방책으로 내놓은 것은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먼저 의견 개진 운동 그 자체가 전혀 부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변화한 한총련의 개혁 체계속에서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의 실치없는 의견개진운동 그 자체는 현 정국속에서 한총련이 위기타개를 위한 형식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큰 처방책이다. 비단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개혁은 올해만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에 이끌려 다니면서 한총련의 정책과 개혁들이 생산되어지는 모습은 바꿔여야 한다. 자신의 주관과 철학에 입각한 실천들이 보수언론의 비판에 다음날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하는 한총련의 모습은 책임있는 실천이 아니라 여론에 끌려다니는 무주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대중추수주의 그 이상도 아니다. 주사논쟁과 관련하여 많은 주사파 학생들이 잡혀갈 때 한총련은 침묵하지 않고 사상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고 나서야 했지 않은가?

지금 시기 한총련의 개혁이 불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의견개진을 통해서 많은 다수가 한총련이 정치투쟁을 하지 않아야 하고 내부 조통위 정책실장을 폐지하라고 말한다면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적당한 내용 또는 분위기만 파악해 보는 정도라는 말인가?

지금은 의견개진운동으로 한총련 개혁을 이야기 할 시기가 아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한총련의 모습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개혁은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다수의 여론은 한총련이 변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할 사안이지 의견개진운동이 한총련 개혁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상반기 사업내용을 홍보하는 식의 의견개진 운동은 공안 정국의 정면돌파 수단도 아니다.

지금 한총련은 보수여론에 이끌려 개혁을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학생대중이 할 수 있는 정치적 목표(교육대개혁, 물가인상, 공무원비리, UR 국회비준등)를 내걸고 당당히 투쟁에 나서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진정 한총련은 자랑스런 백만의 조직이다. 우리가 한총련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한총련을 맹목적으로 옹호해서는 안되며 한총련이 학우대중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발전적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의 바라봐 보수화 물결속에서 진정 학생운동의 목적이 일부와 방향이 무엇이며, 진정 학우들이 요구하는 개혁은 무엇때문에 생겨났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 미 영
(정외·3)

타인 외면한 술문화 지양돼야

외대 뒤 동나무 숲에는 낮이면 만남과 대화의 장이 되는 변화가 있다.

그러나, 밤에 외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노라면 자주 동나무 숲 벤취에서 초를 켜놓고 술 마시는 학우들의 고성방가와 술주정 소리가 귀를 찔러 도저히 책상앞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게 한다. 물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소를 가려서 마셔야하지 않을까? 다운다운이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얼마든지 마실수 있는 문제 아닌가?

때와 장소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생각할 줄 아는 학우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류 창 우
(전자·1)

교수동정

김상국 교수 방일

【수원캠퍼스】▲김상국(체과대·체육)교수=오는 30일부터 10월12일까지 아시아 체조연맹 국제회의차 일본방문 ▲권만학(사회대·국제관계)교수=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국제회의 주제발표차 호주방문

취업안내

취업정보실로 문의

【서울캠퍼스】◆대한스위스화학(주)=신입사원○명, 정경대 9월26일까지 553-1521연락, 공채 ◆중앙학력연구원=신입사원○명, 문리대, 사대 10월1일까지 929-8511/2 연락, 공채 ◆고려전자(주)=신입사원○명, 정경대 9월30일까지 032)346-3665연락, 공채 ◆에스콰이어(주)=신입사원○명, 문리대 9월29일까지 469-5455연락, 공채 ◆한국국제협력단=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28일까지 740-5131연락, 공채 ◆서해공단신문사=신입사원○명, 정경대 9월30일까지 732-1894연락, 공채 ◆행동과학훈련원=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27일까지 424-3567연락, 공채 ◆조선무역(주)=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30일까지 813-3133연락, 공채 ◆장기신용은행=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30일까지 782-0111연락, 공채 ◆동국산업(주)=신입사원○명, 법대, 경경대 10월12일까지 316-7560연락, 공채 ◆유한킴벌리(주)=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10월6일까지 528-1077연락, 공채 ◆삼일공사=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29일까지 461-1911연락, 공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신입사원○명, 약대, 10월1일까지 525-3106연락, 공채 =신입사원○명, 영문과, 9월30일까지 732-5982연락 ◆동국제강그룹=건축·토목·기계·전기·법정·상경·전산 각 2명, 10월12일까지 316-7522연락

알림터

【수원캠퍼스】◆동심=신입사원○명, 불문과, 9월28일까지 501-4321~5연락 ◆한정화학=신입사원2명, 농학과, 9월28일까지 548-5401연락 ◆씨엔씨커뮤니케이션(주)=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30일까지 518-8388연락 ◆경인시민저널사=신입사원○명, 인문·법정·상경·사회계, 9월30일까지 032)432-6024~5연락 ◆국제생명보험(주)=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30일까지 875-4454연락 ◆한국장기신용은행=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30일까지 782-0111연락 ◆두지출판사=신입사원○명, 영문과, 9월30일까지 732-5982연락 ◆동국제강그룹=건축·토목·기계·전기·법정·상경·전산 각 2명, 10월12일까지 316-7522연락

습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윤미숙(의상·90)

【수원캠퍼스】◇지갑=▲장승민(우주·91)

동문모임

면목고 동문회

【수원캠퍼스】▲면목고=오는 30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대구고=오는 30일 오후 5시 30분 공대식당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유전호(물리)▲안철웅(화학) ▲최규선(사학) ▲박도준(국문·3) ▲김나미(영문·1) ▲양진희(지리·3) ▲이종화(행정·4) ▲홍석준(행정·4) ▲임기현(법학·2) ▲고창률(법학) ▲김정균(경영·4) ▲이승엽(경외·4) ▲윤지영(식영·2) ▲박성철(환분·2) ▲한창우(한의예·1) ▲유정아(기악·3) ▲이지연(기악·4) ▲김평래(기악) ▲김성우(성악·4) ▲김정균(심의원·314)

【수원캠퍼스】▲이재준(불문·3) ▲조영래(러시아어·3) ▲전윤영(무역·3) ▲신정태(환경·2) ▲서규희(유전·1) ▲김두영(기계) ▲남궁현(건축·4) ▲이원구(건축·2) ▲최종수(원자·3) ▲최홍순(전산·3) ▲임소미(전산·2) ▲반장호(토목·3) ▲김현기(화공·2) ▲김영만(전자·4) ▲조상태(전자·2) ▲정유진(농학·3) ▲황범상(산디·3) ▲김태훈(산디) ▲이제룡(태권도) ▲김은진(하키부) ▲문두민(에지원·308)

朔風

지존파와 至尊한 윤리 실종

'학교에서 애들이 당하는 괴로움에 수수방관하지 말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라', 최근 일본에서는 아스코 코데라라는 한 가정주부가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과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증심으로 이에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책을 제시한 책 '이지메와의 싸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지메'는 학교에서 특정 학생을 집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아 못살게 구는 집단 일탈행동을 일컫는다.

이지메는 특히 일본에서 고질적인 학교문제가 되고 있지만, 집단 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늘 있기 마련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사회에서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사회문제화 된 학교폭력 '이지메'로 인해 92년의 경우 1백59명의 학생이 자살했고 지난 해에도 7만5천여명의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학기초라는 타이밍이 맞물려 지난 8월 초관을 찍은 후 한달여에 5반에 돌입, 4만5천부 이상이 판매된 이 책은 생생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해결책이 제시돼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코데라 여사가 '이지메' 문제에 발벗고 나서게된 동기는 중학생 딸이 자신의 고민을 토로한 일기를 보게 된 때문이라고 한다. 일기에는 학교에만 가면 애들이 자신을 때리고 발로 차고 몸건을 숨기며 '약취가 난다', '불쾌라운이다' 등 참을수 없는 고통을 가해 매일 아침 머리가 빠개지는듯 아프고 위경련으로 괴로워 죽겠다는 호소로 가득 차 있었다. 코데라 여사는 딸에게 그럴수록 대차게 행동하라고 윽박도 지르고 선생님에게 사정도 해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자신도 괴로워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상상을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럴 수는 없다고 마음을 다잡아 먹었다. 분한 나머지 학교로 찾아가 딸을 괴롭히는 무리들 중의 한 남자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가 '만약 앞으로도 계속 내 딸을 괴롭힌다면 너를 경찰에 고발하고 이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 너의 앞길을 망쳐놓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의외로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딸의 학교 생활이 평온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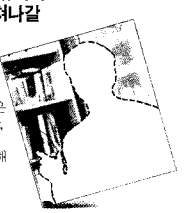
이지메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주로 뭇생기고 공부를 못하며 기낀한 부류가 대부분, 코데라 여사의 딸도 어릴 때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성격이 뒤떨어지는 케이스. 코데라 여사는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는 기본적인 본능을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에는 상층 5%와 하층 5%가 있다. 소외받는 계층은 물론 하층 5%다.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절주해온 우리사회는 상층 5%에게 자신의 부를 꺼리낌없이 과시할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하층 5%에게는 '부'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절벽을 만들었다. 절망의 결과는 포기든가 아니면 증오다. 스물남짓한 젊은이들이 모여 인간이 할 수있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지존파', 또 그들이 증오한 야타족, 사회윤리 실종의 증거가 경악하다못해 처량하게 한다. 추락한 학교와 가정, 그래도 대안은 학교와 가정밖에 없다.

(河河)

"무대는 세계—
조연은 없습니다."

NEW KOLON 2000

21세기 경제한국의 뉴리더—
코오롱의 미래를 펼쳐나갈
주역을 찾습니다.



국내 최초로 나일론 섬유를 개발하여 섬유보국의 기치를 드높이며 출발한 코오롱—
이제 코오롱은 첨단 섬유산업은 물론 정보통신, 유통, 정밀화학, 생명공학 등 미래산업에 대한 꾸준하고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21세기 경제한국을 이끌어 갈 뉴리더로서의 웅지를 세계로, 미래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다가와 있는 경제한국의 주역—
코오롱의 미래는 바로 당신이 주역입니다.
코오롱으로 오십시오.

미래를 드립니다. 젊음을 주십시오.

보람의 일터—
코오롱